

문맥압 항진성 위질환에 대한 경경정맥 간내 문맥간정맥 단락술의 영향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방사선과학교실*

이완식*, 이수정 나호영 주영은 김현수 최성규 유종선 김세중 김재규*

목적 : 문맥압 항진증을 가진 환자에서 상부 위장관 출혈은 정맥류 출혈 외에 위점막 병변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문맥압 항진성 위질환이라 한다. 본연구는 문맥압 항진증 환자에서 경경정맥 간내 문맥간정맥 단락술이 문맥압과 위점막 병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4년 3월부터 2001년 5월 까지 문맥압 항진증의 합병증인 정맥류 출혈로 내원한 환자중 61예에서 경경정맥 간내 문맥간정맥 단락술을 시행하였다.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는 경경정맥 간내 문맥간정맥 단락술 전과 시술 1-2주 후에 시행하였다. 이들 중 시술전 문맥압 항진성 위질환이 확인된 22예를 대상으로 내시경적 위점막 소견을 McCormack등의 기술에 따라 분류하고 문맥압의 변화와 같이 분석하였다. **결과 :** 평균 문맥압은 간내문맥간정맥 단락술 시술 후 평균 27.1 ± 7.8 mmHg에서 19.3 ± 10.3 mmHg으로 감소하였다($p < 0.005$). 시술 전 다양한 정도의 문맥압항진성 위질환이 22예(36%)의 환자에서 관찰되었으며, 그 중 16예(72%)에서 시술 후 호전이 관찰되었다. 문맥압의 정도와 문맥압 항진성 위질환의 유무와의 유의한 관련성은 없었다. 시술전 문맥압 항진성 위병변의 평균 점수는 1.41 ± 0.51 에서 시술 후 0.50 ± 0.52 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p < 0.001$). 중증의 위병증인 경우는 7예였는데 이 중 4예에서 완전 소실을 나머지 3예에서는 경증으로 호전을 관찰할 수 있었다. 경증의 경우 9예 중 6예에서 소실되었다. 위 및 식도 정맥류의 크기 도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결론 :** 경경정맥 간내 문맥간정맥 단락술은 문맥압을 의의있게 감소시켰으며 문맥압 항진증과 관련된 문맥압 항진성 위질환의 호전을 보여 위 식도 정맥류에 대한 영향과 아울러 간경변증에 합병된 문맥압 항진증을 경감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서 표면항원 소실에 대한 후향적 연구

가톨릭 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

점점조*, 배서현, 변병훈, 최종영, 윤승규, 박영민, 이영석, 심규식, 이창돈, 차상복, 정규원, 설희석, 박두호

배경·목적 :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자연 경과중 HBs 항원의 자연 소실은 매우 드물다. 성인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하는 서구의 경우 HBs 항원의 소실율은 연간 0.4-2.0 %로 보고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B형 간염의 감염시기가 대부분 주산기에 일어나므로 자연 경과에 있어 서구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들은 만성 B형 간질환으로 최소한 6개월 이상 추적 경과 관찰이 가능했던 환자에서 HBs 항원의 소실율과 임상 양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방법 :** 가톨릭의대 부속 병원에서 1983년부터 2000년까지 내원하여 추적관찰이 가능했던 만성 B형 간질환 환자들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대상 환자는 총 1306명 (남자: 854명, 여자: 452명)으로 평균 연령은 40.9 ± 13.4 세였다. 내원 당시 진단은 무증상 HBV 보유자 118명 (9%), 만성 간염 777명 (59.5%), 간경변 287명 (22%), 간암 124명 (9.5%) 이었다. 평균 추적 경과 관찰 기간은 43.6개월 (범위, 6 - 204개월)이었다. **결과 :** 1. 대상 환자 1306명중 HBs 항원이 자연 소실된 환자는 총 14명 (1.1%)였고, 이중 남자는 8명, 여자는 6명이었다. 이들 중 HBs 항원 소실 당시에 HBs 항체가 생성된 환자는 7명이었다. 2. 관찰기간동안 HBs 항원이 소실될 때까지 평균 기간은 59.6개월 (범위, 21 - 118개월)이었고, HBs 항원 소실시 평균 연령은 43.6 ± 14.5 세였다. 3. 관찰 기간동안 무증상 HBV 보유자중 8명 (6.8%), 만성 간염 환자중 4명 (0.5%), 간경변 환자중 2명 (0.7%)에서 HBs 항원이 소실되었다. HBs 항원이 소실된 무증상 HBV 보유자 1명에서 17년이 경과후 간암이 발생하였고, 간경변증 환자 1명에서 2년후 이형성 결절 소견이 영상적으로 관찰되었다. **결론 :** 만성 B형 간염 환자에서 HBs 항원의 소실율은 1.1 %였다. 또한 무증상 HBV 보유자 8명중 1명 (12.5%)에서 간암이 발생하였고, 간경변증 환자 2명중 1명에서 간암 전구병소가 관찰되어 HBs 항원 소실후 환자의 경과에 대한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HBs 항원 소실에 관여하는 인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